

사회

■ 광주 편의점 강도 활개 이유 알아보기...

계산대 주변엔 CCTV 없고 업소 상당수 설치조차 안돼

업주들 “대항 말고 돈 주라” 교육도

올 들어 광주지역에 편의점 강도가 활개를 치면서 경찰과 편의점 업계가 구축한 ‘자위방범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 편의점이 CC(폐쇄회로)-TV마저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어 범죄의 ‘사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은 총 13건에 이른다. 경찰과 편의점 업계간 ‘자위방범 체계’에도 불구하고 한 달 평균 2곳 이상의 편의점에 강도가 든 셈이다.

경찰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편의점의 비상전화로 신호를 보내면 지구대에서 즉시 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위방범’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광산구에서만 편의점 4곳

에 강도가 든 것을 비롯, ▲남구 3건 ▲북구 3건 ▲동구 1건 ▲서구 2건 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광주에 편의점 강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강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구축한 ‘자위방범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일보가 5일 광주지역 편의점 10여곳을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편의점에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비상전화 사용법을 모르는 근무자들이 많았다.

또 편의점의 CC-TV 대부분은 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강도 예방을 위해 계산대 앞쪽에 찍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등 자위방범 강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남구 주월동 한 편의점은 66.11㎡ 크기의 가게 내부에 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가게 천장 모서리에 설치돼 강도사건이 발생할 경우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포착하기에 어려운 위치였다.

또 동구 충장로 등 광주지역 8곳의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역시 주로 진열대를 비추고 있을 뿐,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강도사건을 예방하거나 범인 검거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편의점 한 업주는 이에 대해 “편의점마다 다르긴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본사의 허락 없이 편의점 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편의점 업주는 “물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강도사건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CC-TV가 대부분 진열대를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 사건 발생시 일정 금액을 보

전해주는 보장제도도 편의점 업주들의 방법 의식 약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계산대 금고 1대당 10여만원씩의 피해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강도가 침입할 경우 대항하지 말고 돈을 내주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편의점 업주는 “괜히 아르바이트 학생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흉기에 다치거나 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손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의 한 경찰서가 지난 3월과 4월 관내 편의점 60여곳을 대상으로 ‘강도사건 예방을 위한 편의점 점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참여율이 50%를 밑돌았다. 지난 5월 현재 광주지역의 체인점 형태 편의점은 모두 502곳에 이른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트렁크에 △ 있나요?

인천대교 참사에 ‘안전 삼각대’ 비치·구매 관심

“당신의 차량에 ‘고장 자동차 표지판’(안전 삼각대)이 비치돼 있나요?”

지난 3일 인천대교 인근 고속버스 추락사고로 일가족 4명 등 모두 1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자동차 안전 삼각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엔진고장

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안전삼각대 미소지시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 삼각대 설치에 시큰둥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근 출시된 차량의 경우 삼각대가 트렁크에 비치돼 있으나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운전 경력 15년째인 회사원 채모(43·광주시 북구 연제동)씨는 “솔직히 내 차 안에 안전 삼각대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무엇에 쓰는 용품인지도 모르는 운전자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삼각대 등 자동차 안전용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5일 옥선에 따르면 인천대교 사고 발생 후 1일이 지난 4일 하룻동안 옥선 베스트100 코너의 판매 순위 1위는 안전삼각대로, 순위가 무려 400 계단 이상 상승했다.

관련 키워드도 일 평균 조회 수인 300회 대비 무려 400% 이상 높은 1천200건이 발생해 신규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이종행기자 glee@연합뉴스

사고시 설치 안 하면 4·5만원 과태료 부과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만 설치했더라도 상당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 안전삼각대 구매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고장 자동차의 표지)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사고 차량에서 100m 이상의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에는 200m 이상의 후방에 섬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고 시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4

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안전삼각대 미소지시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 삼각대 설치에 시큰둥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근 출시된 차량의 경우 삼각대가 트렁크에 비치돼 있으나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운전 경력 15년째인 회사원 채모(43·광주시 북구 연제동)씨는 “솔직히 내 차 안에 안전 삼각대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무엇에 쓰는 용품인지도 모르는 운전자도 더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삼각대 등 자동차 안전용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5일 옥선에 따르면 인천대교 사고 발생 후 1일이 지난 4일 하룻동안 옥선 베스트100 코너의 판매 순위 1위는 안전삼각대로, 순위가 무려 400 계단 이상 상승했다.

관련 키워드도 일 평균 조회 수인 300회 대비 무려 400% 이상 높은 1천200건이 발생해 신규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이종행기자 glee@연합뉴스



토착비리 4명 구속 서해지방해경청

서해지방해경청은 5일 “올 상반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8명(24건)을 단속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가보조금 횡령이 11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사업 관련 비리 9건(37.5%), 면세유 불법유통 등 기타 사범이 4건(16.7%) 등이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해양시설 공사 추진과정에서 업체의 공사비 편취 등을 눈감아준 혐의 등으로 공무원 12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5급 이상의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연합뉴스

경찰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

경찰이 전담 수사대 신설을 통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5일 강화라 청장 주재로 청사 9층 회의실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 근절 및 예방 대책과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경찰은 2007년 이후 성폭력 전과자 대부분의 범행 수법과 죄질 등을 심사한 뒤 등급별로 관리하고, 성범죄 발생장소와 재범우려자 거주지가 표시된 지도를 제작해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주민의 자위 방범도 강화하는 한편, ‘1경(警)1소년·소녀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예방에 나서고, 아동 성범죄 신고보상금을 대폭 상향해 민·경 협력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 발생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현행 윈스톱 기동수사대에 수사 전문인력을 총원해 수사 기능에서 소관하는 ‘성폭력 전담수사대’로 바뀌어 운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절제나 마약 사범을 조사할 때 진술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선대생 국토대장정 5일 오전 조선대학교 제7기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52명의 학생들이 출정식을 갖고 교정을 떠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16박 17일간 나주·무안·해남 등 총 393.7km를 걸어서 이동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운전 적발 30대 농민 경찰 조사 받은 직후 자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했다.

5일 오후 5시40분께 강진군 강진읍 강진경찰서 주차장 인근 언덕에서 심모(38·농업)씨가 목을 매 숨겨졌던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서는 심씨의 신분증이 든 지갑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없었다.

강진군 모의료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혈중 알코올농도 0.184%)된 심씨는 이날 오후 4시51분 경찰서에 들어왔으며, 3분 뒤 경찰서를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경찰은 “심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나중에 조사키로 하고 곧바로 귀가조치 시켰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연합뉴스

화순 인사비리 ‘윗선’ 개입 여부 촉각

구직자 8명에 3억원 챙긴 군수측근 내연녀 기소

검찰, 돈 흐름 추적

‘화순군의 역대 인사청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수의 측근과 공모해 수억원대 채용비리를 저지른 50대 내연녀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5일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구직자나 구직자 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변조사범 위반)로 조모(여·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병인 일을 하는 조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화순군 화순읍 자신의 집에서 김모씨로부터

딸의 취업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에게 취업 청탁 대가로 각각 3000만~5000만원을 건넨 8명 가운데 5명은 자신의 아들·딸 취업을, 3명은 본인의 취업을 청탁해 7명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조씨가 전완준 화순군수의 측근인 오모(63·구속)씨와 공모해 채용 청탁비 명목으로 구직자들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뒤 내연 관계인 오씨에게 이중 1억94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채용을 청탁한 8명 가운데

7명이 실제 채용된 점과 간병인 신분인 조씨가 역대 인사 청탁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윗선’ 개입 여부 등 정확한 돈의 흐름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7명의 취업자 가운데 지난해 12월 그만둔 1명을 제외한 6명은 지난 1일 화순군으로부터 계약 해지됐다. 검찰은 월 급여 80만원 수준인 일용직들이 3~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건넨 점으로 미뤄 정규직 전환 등의 약속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엽기 목사’

아내 살해 후 토막내 시멘트 발라 담벼락 숨겨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담벼락 안에 시멘트로 발라 숨기거나 호수에 버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목사가 17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의 범행 이유는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은 5일 사체 소과 및 유기 혐의로 이모(53·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0)씨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해 숨기거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17일간 시신을 집 뒤편 담 밑에 숨겨 놓았다가 지난해 3월 22일 여러 토막을 낸 다음 일부를 집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은닉하고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4일 오전 8시15분께 ‘목회자로서 회한이 든다’며 자수했다.

A씨 친정집 유족들은 이씨 주장과 달리 ‘가정불화의 책임은 아내를 멀리한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천안함 조작’ 대학생 구속

서울 성동경찰은 5일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와 증거가 조작됐다고 한 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학생 현모(19)군을 구속했다.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문건을 돌린 혐의로 대학생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차량탈이범 신책나온 주인에 달미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금품을 훔치려던 30대가 때마침 신책나온 차 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인계.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황모(37·무직)씨는 이날 새벽 0시 25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최모(32)씨의 집 앞에 운전석 창문이 절반 가량 열린 채 주차돼 있던 최씨의 승합차 운전석 문에 손을 집어 넣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나온 최씨에게 붙잡혔다는 것.

○~절도 등 전과 9범인 황씨는 경찰에서 “창문이 내려가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욱심이 생겨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지역의 각종 소리로 들리드립시다.

통신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광역시 남동성당사거리 227-9940 | 운영점: (부산광역시) 227-9970